

背面

石像(素描圖) 百濟半跏石像出土

後面에는 섬세한 衣紋이 全體를 덮었고 左右側面에는 各其一條의 瓔珞帶가 마련되어서 裝飾이 秀麗하며 後面에는 二段의 稜形腰帶를 두르고 그 위에 身部를 받들고 있게 하였다. 이 像은 臺座 위에 安置되었던 것으로 史料되며 前面에는 磨損關係로 若干의 衣文이 一部 남아 있을 것으로 仔細히 辨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 하겠다. 크기는 殘存總高가 二一cm이고 돌레가 四五cm이다. 衣文의 樣式과 手法는 圖面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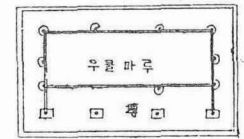
三

지금까지 扶餘에서 半跏石像이 發見된 것은 이번의 發見品을 合하여 三軀가 되었는데 其中에서 이 石像이 第一 큰 것으로 製作된 手法와 衣의 處理가 前에 發見된 滑石製小像과 다를 것이 없으며 다만 다른 것은 滑石像에는 腰帶에 蓮瓣을 돌렸으나 이번 石像은 二段의 稜形腰帶를 두른 것뿐이다. 우리나라 半跏思想惟像의 始源의 發祥地가 百濟領域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때 이번 石像의 出現으로 百濟扶餘時代의 彫刻美가 더욱 生光할 것으로 믿으며 기쁘게 生覺하는 바이다.

南陽鄉校 大成殿

申 榮 勳

一九六七年 여름 무더위 햇볕 속 뜨거운 신작로를 걸어 鄉校에 닿았



南陽鄉校大成殿平面略圖 Scale=20:1

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어 農家의 자자분한 것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管理狀態나 現況은 아주 차참한 지경에 놓였다. 大成殿은 正面 三間에 側面 三間 長方形平面의 楹, 前面 도리간 한칸을 土床으로 하고 開放하였다.

平面은 正面全長 營造尺 三〇尺, 側面은 全長이 一五尺으로 正面은 御間과 來間을 等分하였고 側面은 夾間이 中央 間보다 넓다.

前面 平柱는 營造尺으로 약 二尺 높이고 柱高에 놓인 圓柱, 柱高는 營造尺 七尺, 기둥 윗몸에 창방을 끼우고 큰 주두를 놓았다. 공포가 二翼工이어서 큰첨차가 작은 주두를 하나 더 얹었다.



보이지는 翼工 두몸을 하나로 합친 커다란 것을 썼으며 퇴량을 받았다.

퇴량은 高柱(柱高營造尺 一〇尺)와 연결되었고 고주에서의 보아지는 길이 一尺 높이 六寸의 작은 部材를 썼다.

高柱를 받은 礎石도 花崗石製인데 平柱礎石은 方形이고 高柱礎石은 圓形이다.

架構는 半五檉집, 翼工집의 通式을 따랐다. 지붕은 맛배지붕, 천정은 우물받자, 內陣바닥은 마루, 퇴간에는 博을 깔았다.

천정으로 대들보 윗부분을 쥘 수 없어서 架構의 比例를 알 수 없었으나 平面은 正面對 側面이 二對一이고 高柱가 正面길이의 1/3이며 翼工의 길이는 平柱의 1/3이다. 翼工端과 柱心과의 거리는 高柱의 1/4로 보아지의 길이와 같다. 이 집에서 注目되는 것은 礎石과 花盤이다.

平柱와 高柱에 다른 形態의 礎石을 한 건물에 使用하는 例는 三國時代以來 各 遺跡에서 散見되나 상당히 키가 높은 方形礎石과 키가 낮은 圓形礎石을 混用한 例는 그리 많지 않다.

水原 華寧殿大門처럼 前後柱列에 八角形礎石을, 문을 다는 가운데 기둥술에 낮고 넓직한 方形礎石을 놓은 例는 大門이라는 특수한 用途때문에 생긴 形態이지만 大成殿같은 正殿類의 건물에 이러한 配置를 한 것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平柱 柱間 中央部位 장방과 장혀 사이에 끼워 놓은 花盤은 唐草刻 仰華盤으로 침차와 翼工과 한가지 系類의 것이다. 이 形態는 李朝初中期 중심포집이나 중심포에 다포계양식이 가미된 절충식 건물에서 볼 수 있는 類形의 것과 흡사하다.

이웃인 水原城廓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古格을 지녔다.

大成殿 이웃 건물의 팔각지붕 합작에서 또하나 주목할만한 部材를點考할 수 있다.

朴工 아래 三角狀 합작을 벽돌로 쌓고 그 중앙에 둥근모습의 것으로 눈을 박았다.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지금까지 알려진 例는 많지 않으나 합작에 이런 부재를 박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나오는 方式인 듯 짐작된다.

벽담에도 이런 둥근부재를 끼는 수법이 있다. 洛山寺垣牆, 서울 七宮의 垣牆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수법은 합각벽의 처리와 相通한 다.

洪思俊先生님의 調査에 의하면 百濟時代의 遺品으로 花崗石製의 이 둥근 部材가 扶餘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 實見할 기회가 없어서 確言할 수 없으나 만일 이것이 百濟代 합각머리나 垣牆에 쓰여졌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南陽은 高句麗의 唐城郡, 新羅의 唐恩, 高麗의 江寧都護府 혹은 益州收으로 忠淸地方과 島嶼地方에서 漢城을 향하여 가는 길목의 要衝地이었다. 일찍부터 海路가 開拓되고 港灣施設이 있어 船舶의 出入도 있었다.

水原城郭 造營時에도 安眠島에서 伐木된 木材가 南陽鵞浦에 닿아揚陸되었었다.

南陽은 水原地方이 開發되기 전부터 크게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鄉校같은 公共建物の 造營도 다른 地方에 못지 않게 하였었다.

水原이 開發되면서 南陽은 小邑으로 轉落되었다. 鄉校같은 公共建築物도 土豪들의 恣意에 따라 移轉을 거듭하게 된 悲運도 맛보게 되었다.

現 鄉校는 一九三三年에 지금의 位置에 移建되었다. 整然하였을 配置는 無視되어 東西廡 등은 省略 脫落되고 말았다.

資料

新羅 崇福寺碑片

黃 壽 永

지난 四月 十六日 경주시內 古物商에서 購入한 다음의 五片은 모두